

광산업 2단계 육성 계획 발표



오는 2004년부터 5년간 모두 5천5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는 광산업 2단계 육성방안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기본방향에는 2004년부터 추진되는 광주시의 광산업 2단계는 하부구조 구축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와는 달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들간 연계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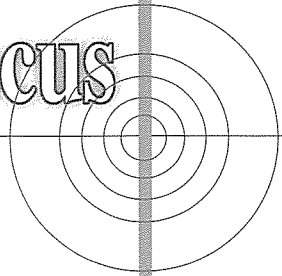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광주 시청 회의실에서 '광산업 2단계 육성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를 갖고 광관련 산업을 전략기술개발사업과 기업지원사업, 기반사업의 3가지 분야로 나

누어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전략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초고속 광통신용 광부품 개발과 ▲반도체광원 개발 및 신 조명단지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업지원사업은 ▲광 응용제품 개발사업 ▲광산업 혁신지원사업(시험·인증, 신뢰성 평가, 창업보육, 생산장비 구축, 해외 마케팅 및 국제협력 지원,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등) ▲지식교류 및 확산프로그램(조사연구, 연구회 운영)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기반사업은 ▲광산업단지 하부구조 구축사업(광통신기기 시험시스템, 정보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광산업 2단계에서는 양적확대로부터 질적 고도화를 위한 운영체계의 확립과 광산업을 활용한 타 산업과의 연계성도 강조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단계가 광산업 도입단계로서 하부구조 구축에 중점이 두어졌다면 2단계에서는 1단계의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단계에서는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 등이 하부구조 구축에 따른 저변확대로 선택과 집중보다는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2단계에서는 지역에 갖추어진 역량을 토대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전략화하는 선택과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산업의 연계성에 있어서도 1단계가 각 사업들간 독립성이 강했다면 2단계에서는 사업들간 연계성을 갖도록 선택된 기술이나 제품분야에 기술개발부터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형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2단계 사업은 전략사업과 기업지원사업, 기반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며 200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3천795억원을 포함, 모두 5천5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같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2001년말 현재 8천500여억원에 달하는 광주지역 광산업의 생산이 2005년 2조9천400억원,

2010년에는 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광산업이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육성되기 위해 광 제품혁신을 창조해 나가는 한국, 한국 광산업의 생산·연구·교육의 집적지 광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광주는 교육과 연구, 생산이 함께 집적화된 국내 유일의 광산업 단지이며 산·학·연 협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며 광주지역 광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광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양적 확대로부터 질적 고도화를 위한 운영체계의 확립 ▲광산업을 활용, BT(바이오테크놀러지)나 NT(나노테크놀러지)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 및 기술개발사업 추진 ▲광산업 육성방안의 설정과 조율을 위한 시장과 혁신기관과의 모임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시민이 함께하는 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광을 사회운동과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광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빛의 과학관"을 건립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에 발표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들로 기술 기획반을 구성, 광산업 2단계 육성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